

Ⅲ. 부모상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상담시기별 부모상담을 준비해요

신입원아 상담

학기 초 상담

학기 중 상담

학기 말 상담

신입원아 상담

준비사항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준비된 물리적 환경:**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 보육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 풍부한 교육 자료가 제시된 환경,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 **교사의 이미지:** 교사다운 복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예의바른 인사, 차분한 안내
- **교육안내 홍보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운영 안내책자, 입학상담용 간결한 리플릿(어린이집의 특성화 반영,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반영)
- **상담 공간 구성:** 교사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공간보다는 차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지 점검, 상담 공간을 청결하게 정리
- **교사 교육:** 입학상담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전화 받는 요령, 부모 방문 상담에 대비한 교육)
- **예상 질문목록 및 답변정리:** 부모들의 자주하는 질문의 목록 및 답변 작성하여 준비

〈효과적 상담을 위한 준비 자료〉

- 유아교육기관 안내 책자, 리플릿 또는 상담 내용을 파일로 정리
- 유아들의 활동 자료 집 또는 1년간의 활동 과정 사진
- 화분이나 꽃
- 유아교육기관 봉투(안내 책자 등을 담아서 부모에게 제공)

〈질문목록 예시〉

- 한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 선생님들은 경력이 많아요?
- 급식은 안전해요?
- 엄마와 잘 떨어질지 걱정이예요?
- 이제 세 살인데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상담방법

부모 안내

예비부모가 상담을 왔다면 교사 누구라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상담 테이블로 안내한다. 자칫 교사들이 분주하거나 상담 담당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비부모를 보고 지나치거나 형식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 담당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비부모를 제일 먼저 본 교사는 반갑게 인사하고 현관에서 실내화 제공 후 교사실의 상담테이블로 안내한다.
- 부모에게 어린이집 안내 책자를 제시하고, 상담 담당자가 곧 올 것임을 알린다.
- 상담 담당자(원장 또는 주임)에게 연락을 취하고 상담 담당자가 올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면서 유아들의 활동 자료집이나 사진을 보면서 기다리도록 안내한다.

상담방법

상담의 과정

- 상담 담당자는 부모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 계절 인사 및 방문 환영 등의 인사를 나눈다.
-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왔다면, 영유아에게 관심을 보이고, 영유아가 다른 교사와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부모 또는 영유아가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제시한다.
- 어린이집 안내 책자 또는 리플릿을 보고 보육내용과 운영 시간 등에 대해 안내한다.
-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점을 듣고 상세한 답변을 한다.
- 원서 접수와 과정과 반 편성, 보육료 납부 방법 등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 보육실과 강당 등의 실내 환경을 둘러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상담 담당자 또는 다른 교사에게 안내를 부탁한다.
- 교실을 둘러보는 시간은 중요한 상담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교실의 특징,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활동 등을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담테이블에서 질문이 없던 부모도 교실을 돌아보면서 평소 궁금해 하던 질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교사보다는 경력교사가 교실 안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신입원아 상담

학기 초 상담

학기 중 상담

학기 말 상담

학기 초 상담

중요성

학기 초 상담은 영유아 적응과 관련하여 3월 1, 2주 또는 적응과정 관찰 후 4월에 실시할 수 있다. 학기 초 영유아의 적응은 곧 성공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리로 직결되므로 영유아의 적응과정을 관찰하고 부모와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부정적인 교육기관 경험을 한 영유아의 부모상담

이전 보육기관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영유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인 보육경험을 한 영유아는 등원 거부를 하거나 교사와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사는 전문서적이나 동료교사와의 토의를 통하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고 부모상담을 계획한다.

상담내용

〈이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자료〉

- 등원 거부 상황 관찰 자료
- 또래 관계 및 놀이 탐색과 참여 거부 행동 관찰 자료
- 교사와의 갈등 상황과 영유아의 반응 관찰 자료
- 급·간식, 낮잠 등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 자료

〈상담 시 유의할 점〉

- 이전 어린이집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
- 영유아기에 발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임을 설명한다.
- 어린이집에서의 지도 방안과 부모의 협조 사항을 이야기한다.
- 적응 기간 중에는 영유아의 적응 뿐 아니라 부모의 적응 과정 또한 관심을 갖는다.
- 교사는 부모의 불안과 조바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상담내용

보육기관 경험이 없는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상담

자녀를 처음 보육기관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 영유아만큼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를 이해하고 영유아의 기관 적응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제공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적응 정도, 발달정도(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또래 관계, 놀이 참여 정도 등을 관찰하여 전문가의 시각에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야기 한다.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내용〉

- 부모와 헤어진 후 울지 않고 놀았을까?
- 급식과 간식을 잘 먹었나?
- 친구와 함께 노는가?
- 교사의 말을 잘 따르는가?

〈영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수집해야 할 자료〉

-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이유시기와 과정, 첫말, 걷기, 대소변 가리기, 이전 어린이집 적응 정도 등)
- 영유아의 병력(임신과 출산과정의 문제, 출생 후 질병 및 장애유무)
- 부모와의 관계
- 부모의 양육 방법(자녀의 행동 지도 방법, 가족관계 등)



TIP. 참고자료

영유아가 기관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분리불안은 발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다. 특히 애착형성 단계인 0세, 1세 영아들이 낯가림을 하고 부모와 헤어질 때 보이는 분리불안은 발달적 경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가 지속적으로 분리불안을 보이고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와의 애착의 문제 또는 영유아의 기질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전문서적이나 영상은 다음과 같다.

애착 : ebs 아기 성장보고서 3부, ‘애착’

<http://www.ebs.co.kr/tv/show?prodId=404&lectId=1185296>

기질 : 아기 성장보고서 5부, 육아의 키워드, ‘기질’

www.ebs.co.kr/tv/show?prodId=404&lectId=1185298



상담방법

상담순서

- 인사, 일상적 대화로 라포 형성하기
- 학기 초 상담의 목표 안내
-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부모의 소감 듣기
- 영유아의 가정에서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정보 경청
- 부모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어린이집에서 지원해주길 기대하는 부모의 요구 확인
-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계획 수립하기
- 상담내용 요약
- 상담 마무리

🔍 사례 들여다보기

내용

“또래와 어울리지 못해요.”

만4세 수정이는 또래에 관심이 많지만 어울리지 못하고 또래들이 놀이하는 근처에서 배회한다. 교사가 또래와 함께 놀도록 놀이지원을 했으나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말없이 또래들의 놀이만 쳐다본다.
교사는 수정이의 또래에 대한 관심을 더 관찰하기로 하고 상담에서 부모를 통해 수정이의 사회적 관계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예시

① 인사, 일상적 대화로
라포 형성하기

➤ “안녕하세요. 수정이 어머님(아버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② 학기 초 상담의 목표 안내

➤ “1년 동안 수정이를 잘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생활과 전반적인 발달 특징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상담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수정이를 관찰하고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소감 듣기

➤ “수정이가 어린이집 생활 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④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정보 경청

➤ “수정이는 집에서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나요?”
“블록을 좋아하는군요. 어린이집에서도 수정이가 좋아하는 꽃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정이는 주로 혼자 노는 편인가요?”
“놀이터나 다른 또래의 집에서 놀이 해본 경험도 있을까요?”

⑤ 부모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어린이집에서 지원해주길
기대하는 부모의 요구 확인

➤ “어린이집에서 수정이가 또래와 함께 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원하시는 거죠.”
“저도 수정이가 또래에게 관심은 있는데 아직은 탐색 단계인 듯해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4세는 또래와 우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⑥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계획 수립하기

➤ “학기 초라 아직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친한 친구와 짝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수정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놀이 기회를 주시고 친구와 해보도록 격려해주세요.”

⑦ 상담내용 요약

➤ “오늘 수정이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래와의 놀이를 관찰하고 변화된 점이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친구와 무슨 놀이를 했는지 물어봐 주시고 친구와의 놀이 경험을 칭찬해주세요.”

⑧ 상담 마무리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1년 동안 수정이를 잘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 ● ● ● **학기 중 상담** ● ● ● ● ●

학기 초 부모와 영유아 지원 계획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을 관찰한 후 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한다.

상담준비

- 영유아 발달 관찰 자료(각 발달 영역별 체크리스트, 행동목록표, 일화기록)
- 영유아의 발달 정보를 드러내는 놀이 과정 사진(블록 구성 등)
- 영유아의 놀이 결과물(끼적이기, 그림, 만들기 등)
- 상담일지(영유아의 발달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하는 내용, 부모의 요구 사항 등 기록)
- 영유아의 현재 상태(놀이선택과 몰입, 또래관계, 일상생활 습관 및 태도)
- 문제행동의 요인(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나 사건)과 지속기간(시작시기), 심각성(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적응능력 저하정도)
- 영유아의 적응과정과 적응 방식

상담내용

-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적응
- 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 영유아의 또래 관계 및 사회적 기술
- 영유아의 정서조절과 행동문제
- 영유아의 발달과제 이행 정도
- 영유아와 교사의 애착 관계
- 기본생활습관 등





● ● ● ● ● **학기 말 상담** ● ● ● ● ●

학기 말은 학기 초(중) 상담내용을 회상하고, 1년 동안의 영유아의 변화와 진전, 진급에 대비할 점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준비

- 1학기에 비해 진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활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일화기록, 관찰일지, 체크리스트 자료 등
- 영유아의 발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언어 능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읽기, 쓰기, 문장표현 변화, 수리적 사고 능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창의적 놀이와 사고를 드러내는 자료, 만 5세의 경우 학습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상담내용

- 학기 초에 비해 변화된 점을 중점적으로 상담한다.
- 지속적으로 지도하거나 다음 해에 연계할 부분을 제시한다.

상담과정

- 인사 나누기
- 영유아의 일상경험 이야기로 라포 형성하기
- 학기 초(중)의 상담 내용 회상
- 영유아의 변화된 점에 대한 정보 공유
-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계획 수립하기
- 상담 내용 요약
- 상담 마무리



🔍 사례 들여다보기

내용

“화가 나면 울음으로 요구를 표현하고, 물건을 던져요.”

만2세 경현이는 울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화가 났을 경우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를 때도 있다.

부모상담 결과, 가정에서 경현이가 울면 부모는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부모도 힘들어서 짜증을 낼 때가 있다고 한다.

▶ 학기 초 상담 내용: 부모와 교사는 경현이가 울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때 화난 정서를 이해하고 경현이의 정서를 말로 들려주기, 말로 표현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요구를 말로 표현하면 격려하기로 약속을 했다.

예시

① 인사

“안녕하세요. 경현이 어머님(아버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동생은 누가 돌봐주고 있나요?”

② 영유아의 일상경험 이야기로 라포 형성하기

“오늘 경현이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건네며 ‘함께 놀자.’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경현이가 친구와도 꽤 오랜 시간 함께 놀아요.”

③ 학기 초(중)의 상담 내용 회상

“1학기 상담에서 경현이가 자신의 요구와 정서를 말로 표현하고 친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이 아닌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

④ 영유아의 변화된 점에 대한 정보 공유

“경현이의 언어표현과 또래 관계를 유지해서 관찰하고 경현이의 정서표현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다양한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고 친구에게도 “안 돼.”, “내 거야.”와 같이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⑤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계획 수립하기

“아직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표현의 미숙으로 단편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3세반에 진급했을 때에는 또래 관계와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지도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정 표현의 모델링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점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⑥ 상담 내용 요약

“정서표현은 사회성 발달과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은 기간 경현이의 언어발달과 사회·정서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내년 담임 선생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⑦ 상담 마무리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경현이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영유아 연령별 부모상담을 준비해요

부모상담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도록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과정으로 영유아 발달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별 특성과 과제를 이해해야 한다.

영아기 부모상담

영아기는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의 부모는 주로 영아의 일상생활과 교사와의 애착과 분리불안, 언어발달, 자조기술의 습득과 자율성 등이 주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영아의 발달 특징과 과업을 이해하면 상담의 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

영아기 주 발달 과업

- 부모와 기본적인 신뢰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 신체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운동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
- 어휘발달과 상호작용의 기초 형성
-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기초 형성



상담 내용

-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자는가?
- 분리 불안은 없었는가?
-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교사와 눈 맞춤을 잘 하는가?
- 발달 지표에 지체되지 않았는가?
-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어떠한가?
-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는가?
- 자기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가?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고, 놀잇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가?

유아기 부모상담

유아는 자기주도성과 또래 관계 형성, 논리·수학적 사고의 기초, 어휘발달과 문장의 기초, 기본생활습관, 신체조절력과 정서조절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유아의 부모는 영아의 부모와는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한다.

유아기 주 발달 과업

-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운동기술 발달
- 소근육 운동 및 조절 능력 발달
- 어휘가 풍부하고, 문장으로 자신의 의견 표현
-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이해
- 교사(부모)의 복잡한 지시를 듣고 따르기
- 사물의 이름과 특성 등 이해
- 논리·수학적 사고의 기초 발달
- 또래에 관심 갖고, 또래와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발달
- 자신의 감정 조절과 감정을 말로 표현
-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조절
- 활동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고 약속 지키기
- 기본생활습관 지키고 실천
-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 후 놀잇감 정리
- 자신의 놀이경험을 기억하여 말하기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 설명
- 만5세의 경우 학습의 기초 능력 발달

상담 내용

- 유아가 놀이 또는 집단활동에 집중하는가?
- 또래와 놀이하는가? 몇 명의 친구와 놀이하는가?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가?
- 또래 유아의 발달보다 지체되지 않았는가?
- 문제 행동은 없는가?
- 학습태도와 주의 집중력은 어떠한가?
- 학교에서 갔을 때 학습을 잘 따라 갈 수 있는가?
- 읽기, 쓰기, 이야기 이해하기 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 수학적 이해 정도는 어떠한가?
- 기억력은 어떠한가?
- 놀이를 끝고루 하는가? 블록만 하는데 귀찮은가?
- 친구들을 때리지는 않는가? 혹은 맞지는 않는가?



3 영유아 행동특성별 부모상담을 준비해요

○ 어린이집 생활과 적응과 관련된 문제

-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 아침에 헤어질 때마다 울어요.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해요.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나요?
- 친구들이 자주 때린다고 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아이가 다쳐서 왔어요. 우리 아이가 산만한가요?
- 말을 안 해서 어린이집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 우리 아이가 발표를 잘 하나요?
-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잘 따라 해요?
- 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보다 어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 아이가 반의 아이들이 시시하다고 하면서 언니들하고만 놀려고 해요.
- 아이가 어린이집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 우리 애는 엄마만 따르고 아빠는 싫대요. 왜 그럴까요?
- 손가락을 늘 물고 있어서 손톱이 다 닳았어요. 못하게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나고 준비하는 속도도 너무 느려요. 어린이집에서도 행동하는 것이 늦지요?
- 요즈음 들어서 거짓말을 해요.
-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린이집의 놀잇감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 아이가 자기 물건을 안 챙겨요.
- 집안을 어질러 놔요. 자기 장난감도 정리를 안 하고 여기저기 늘어놔서 매일 야단치게 돼요.
- 텔레비전과 비디오(게임)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 집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 다녀서 걱정이예요.
- 아이가 무조건 “안 해.”, “싫어.”라고 반항을 해요.
- 손님들이 와도 인사를 안 해요. 손님들이 질문하면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려고만 해요.
- 동생하고 매일 싸워요.
- 음식을 물고 씹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먹는 양이 너무 적어요.
- 편식이 너무 심해요.

○ 영유아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걱정이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 집에서는 대장인데 밖에만 나가면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탈이에요.
- 아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고집이 너무 세고, 누구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요.
- 해보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못한다고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도 무조건 못한다는 말부터 해요.



○ 유아의 발달, 학습 능력과 관련된 문제

- 우리 아이의 언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는 것 같아요.
-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하지를 못해요. 책을 읽을 때도 놀 때도 한 가지를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고 산만해요.
-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면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 아직 한글을 쓸 줄 몰라요. 너무 늦었죠?
- 예능 교육은 어렸을 때 시키라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 책을 많이 읽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사주는 것이 좋을까요?
- 초등학교를 보내려니 걱정이 되네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 교사들이 상담하고 싶어 하는 내용

위에서 제시한 부모들이 원하는 상담 내용 외에 교사가 부모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과 또래 관계, 발달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교사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깨물어요.
- 놀이할 때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내서 방해 행동을 해요.
- 한 가지 놀이만 해요.
- 또래에게 과격한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 자녀는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해요.
- 영유아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어서 관심이 필요해요.
- 가정에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해주셔야 해요.
-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사례 들여다보기



TIP. 시기별,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상담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상담내용을 적어본다.

내 용

“정은이가 어린이집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첫 번째 예시

정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은이가 어린이집 생활이 재미없다고 해서 어머니도 염려가 크시겠어요. 어린이집 생활을 관찰했을 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도 바깥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협력해서 모래놀이에서 성 쌓기를 했어요. 게임 할 때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워낙 적극적인 성격이라 리더십도 있고 친구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걱정이 되네요. 친구들 관계의 문제는 없는지, 놀이가 재미없어서 인지 더 살펴봐야겠어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전화 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

내 용

도 요즈음 정은이가 귀가할 때 어린이집이 재미없었다고 말해서 고민하고 있던 중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린이집 생활을 지켜보고 어머니께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전화 주셨네요.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 정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무엇이라고 그러던가요? 애 그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모든 시간에 재미없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동화 듣기 시간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시간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게임 할 때도 정은이가 직접 참여할 때는 신나서 참여하는데 다른 유아가 하는 것을 기다릴 때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는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기다리거나 참는 것이 어렵잖아요. 특히 정은이는 활동적이고 주도적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차츰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다른 아이의 말을 듣는 것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깐 정은이가 재미없다고 말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이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자신이 발표할 차례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은이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칭찬을 많이 해줄게요. 어머니께서도 격려해 주세요.

4 상담유형별 부모상담을 준비해요

부모와 교사의 상담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의도적으로 약속된 상담일수도 있고 등·하원을 지도하면서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형식적 상담

상담일정 계획

- 2~3주전에 상담 일정을 공지한다.
- 상담 일정(안)을 가정으로 보내거나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부모가 적어서 보내도록 할 수도 있다.
-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확정한다.
- 형제가 어린이집에 함께 다닐 경우에 상담시간을 사전에 조율한다.
- 퇴근이 늦은 부모의 상담 시간을 배려한다.
- 한 부모와 20분~30분 정도의 상담 시간을 계획한다.



상담일정 계획

- 깔끔하고 정돈된 어린이집 환경은 부모가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음악을 준비하거나 상담 테이블에 화분을 준비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 상담 테이블에는 영유아 관찰일지, 의미 있는 놀이 결과물, 사진, 이전 상담일지 등을 준비한다.
- 어린이집 현관 또는 입구에는 상담 장소 안내문을 부착한다. 교실 입구에는 상담 시간 등의 안내문을 부착한다.
- 부모가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책자나 영유아들의 놀이결과물을 교실 입구에 비치한다.
- 교실 입구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 준비한다.
- 교사는 교실의 입구가 보이는 위치에 앉고, 부모가 입구를 등지고 앉도록 의자를 배치한다.
- 교사의 단정한 복장과 편안한 미소는 부모에게 신뢰감을 준다.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경우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교사의 태도와 상호작용

복장과 헤어스타일 검토

- 누가 보아도 교사다운 복장이 있다.
-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70%이상을 차지한다.



교사의 특이한 버릇 검토

- 머리를 자주 쓸어 올린다.
- 눈을 자주 깜박인다.
-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인다.
- 말이 빠르다.
- 흥분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교사의
태도와
상호작용

신뢰감을 주는 표정, 목소리

- 밝고 상냥한 얼굴 표정과 미소,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반응이다.
- 가볍게 미소 띤 얼굴로 부모의 양쪽 눈과 입 사이를 밝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적당한 수준의 목소리 크기(tone)로 말하면 부모에게 교사의 수용적인 관심을 전달할 수 있다.

부모의 말에 호응하기

- 호응하기는 부모가 말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표현한다.
- 말하는 동안, 마친 직후에 웃어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인 반응이나, “아 그랬군요.”, “그렇지요.”와 같이 맞장구를 치는 언어 반응은 상대방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그러나 “응, 응” 등의 언어적 맞장구나 지나치게 잦은 음성적 호응은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

간결한 상호작용

-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말한다.
- 부모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부모가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 대화중심(부모와 교사의 의견 교류, 생각 공유)의 상호작용을 한다.

편안한 자세

- 신체적으로 이완되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 상대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몸을 약간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 가끔 손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제스처(gesture)를 사용할 수도 있다.



TIP. 사회학자 멜라비언(Mehrabian, 1971)에 따르면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때 38%는 억양이나 말투를 통해서 전달되고, 55%는 표정이나 몸짓, 제스처 등의 신체언어로 전달되며 7% 정도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 전달된다. 즉 93%가 신체언어로 전달되므로 교사의 복장, 자세, 표정 등을 통해 전달된다(곽현주, 2006).

준비자료

- 영유아가 선호하는 놀이형태, 친구관계 등에 대한 관찰 내용과 상담할 내용 기록
-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놀이 결과물(그림, 언어활동 자료)과 분석 내용 기록
- 부모들이 주로 하는 질문, 예측되는 문제 상황과 그리고 상담 진행 방법에 대한 기록
-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교육에 대한 관점, 양육태도 등 부모에 대한 사전지식 자료 또는 관련 기록
- 가정환경조사서 내용 중 부모와 의논하고 싶은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일지
- 연령별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부모의 질문과 교사의 답변(상담내용)을 작성하여 준비
- 상담 역할극을 통해 상담 중 얼굴표정, 말투, 몸짓,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필요 시 수정(예시: 경력교사는 부모역할, 초임교사는 교사역할)

🔍 사례 들여다보기

내 용

첫 번째 예시

“한 영역에서 혼자 놀아요.”

만3세 현수는 한 학기 동안 ①미술 영역에서 ②혼자서 그림만 그린다. 학기 초 부모는 현수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 주길 요구하였다. 현수의 부모는 현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한 가지 놀이만 해도 발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수시로 질문을 해왔다.

상담 시 준비 자료

- 현수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는가? 집중시간은 어떠한가?
- 그림의 형태, 주제, 색의 변화는 있는가?
- 미술 영역에서의 놀이 이외에 다른 상황에서의 또래 관계는 어떠한가?
- 주로 혼자 놀이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 또래와 협력하는가? 자신의 의견(부탁, 거부 등)을 표현하는가?
- 또래에게 놀자고 제안하는가? 또래의 놀이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번째 예시

“우리 아기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만4세 현수는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불평을 한다. 현수의 부모는 현수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사는 현수의 친구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담에 임하고자 한다.

상담 시 준비 자료

-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
- 현수는 어떤 성향의 친구와 어울리는가?
- 현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친구는 누구인가? 왜 갈등하는가?
-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현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 현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인가? 혼자 배회하는 편인가?
- 현수는 또래에게 거칠게 반응하는가? 우호적으로 반응하는가?



- 부모를 완벽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TIP.



부정적 언어표현	순화된 언어표현
고집이 세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즈음 어휘력이 발달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많습니다.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슬픔과 실망을 나타내는 반응정도가 강합니다.
자꾸 울어요.	울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모가 주로 이야기 하고 교사는 경청하며 듣는다.
- 교사는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관점, 의견, 사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화의 가치가 있다.
- 느낌을 반영해 준다. 교사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속마음을 파악하여 전달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부모의 말을 비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들어주어야 한다.
- 부모의 이야기를 요약해 준다. 교사는 부모의 생각과 감정을 요약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들려준다. 부모의 말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말할 때의 감정, 그가 한 말의 목적, 시기, 효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관점과 자신의 말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다.
- 부모가 과장할 수도 있음을 기억한다.
- 부모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 중요한 결단을 대신 내려주지 않는다.
- 상담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교사는 상담이 끝나기 5~10분 전에 부모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시간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이는 부모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추가정보 및 이번 상담에서 알아보아야 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상담을 마칠 때 교사는 상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여 들려준다.



🔍 사례 들여다보기

예시

경청하며 듣기
부모의 느낌 반영하기

- ▶ “경준이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고집을 피울까요?”
- ▶ “부모님이 바쁠 때 경준이가 고집을 피운다면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개방적인 질문하기

- ▶ “부모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보셨나요?”
- ▶ “사용해 보신 방법 중에서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 “경준이는 왜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부모의 말 요약

- ▶ “부모님의 말씀은 경준이의 고집으로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시는 건가요?”

다양한 각도에서
자녀의 행동 이해하기

- ▶ “성인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순하고 어른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지만 실제 고집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 ▶ “고집으로 타인에게 폐가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집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결단을
부모가 내리도록 하기

- ▶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염려가 되신다면 영유아 진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정보를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앞으로의 지원 계획 논의

- ▶ “어린이집에서는 경준이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놀이를 마치는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무조건 자녀의 의사를 꺾기보다는 자녀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경준이의 고집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등하원시
상담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등·하원 시킬 때 짧은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아의 문제 행동과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짧지만 빈번한 비형식적 상담은 교사와 부모를 서로 친숙하게 해주고 신뢰할 수 있게 한다.

등원 시 교사는 영유아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밝은 미소와 친밀한 대화를 건넨다.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부모에게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하원 시 부모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통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즐거웠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편안한 정서를 가지고 귀가하도록 한다. 혹시 일과 중 담임 교사와 갈등이 있었던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귀가 때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귀가 시 교사는 등원 시 힘들었던 영유아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부모에게 이야기 해주며, 영유아가 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칭찬해 준다.

통학버스로 귀가하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에게 영유아의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특징적인 부분을 짧게 들려준다.

전화상담

비형식적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화상담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부모의 경우 편리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유아의 행동이나 가정에서의 유아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할 때 좋은 수단이 되며 부모와 교사 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화상담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화를 걸기 전 인사말에서 전화 끊기 전에 할 말을 대본처럼 적어보고 사전 연습을 해 본 후 전화 통화를 하면 실수를 덜하게 될 것이다.

전화 대화가 필요한 상황

- 영유아가 몸이 아팠거나 기분이 안 좋았을 때
- 영유아가 칭찬받을 만한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 영유아의 식습관이나 낮잠이 불규칙적이었을 때
- 영유아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경우
- 영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해 간단한 상담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해야 할 시점

- 영유아가 다쳤거나 아팠다면: 영유아가 집에 도착하기 전
- 영유아를 칭찬하거나 친구와 싸웠을 때: 영유아가 집에 도착한 이후
- 영유아가 결석했을 때: 영유아들의 귀가이후에 바로

전화 상담의 과정

- 인사
- 영유아의 오늘 하루 생활이나 영유아가 잘하는 점 칭찬
- 전화를 건 목적 전달
- 그 외 부모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영유아의 변화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 영유아와 통화 후 끝인사

전화 상담의 유의점

전화는 표정이나 비언어적 소통 없이 말투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투에 신경 써야 한다.



☞ 사례 들여다보기

내 용

첫 번째 예시

“아침마다 아이와 헤어지기 힘들어요”

만1세 준수는 아침에 등원할 때마다 울고 부모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아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준수가 울어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면서 출근을 했다.

교사는 부모가 직장에서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전화 상담으로 준수가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에는 잘 적응하여 생활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답변 예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김민희교사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준수가 아침에 울어서 속상하셨죠?”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에 10여분 정도 울었지만 제가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치고 놀이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식사도 잘 하고 낮잠도 편안하게 잘 잤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1세 영아들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로 낯선 기관과 사람에게 불안 정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3월이니까 부모님에게 형성된 애착이 교사에게 전이가 되고 어린이집에 편안함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수가 적응하기까지 힘들시겠지만 조금 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도 담임으로서 계속 더 신경 쓰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었어요.”

만2세 영원이는 간식은 먹었으나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다. 교사는 영원이가 아파서 식사를 거부한 것인지 싫어하는 음식 때문인지가 궁금하여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답변 예시

“영원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귀가 후에 간식이나 식사도 했나요?”

“영원이가 간식은 잘 먹었는데, 점심은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몸이 안 좋은 것인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건강 문제나 음식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즈음 영원이가 혼자서 포크와 숟가락을 먹어보도록 하고 있는데, 혼자 먹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가정에서는 혼자 먹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먹여 주시는 편인가요?”

“혼자 먹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점진적으로 스스로 식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민재가 다쳤어요.”

만3세 현경이와 민재가 공을 잡으려고 달려오다가 서로 부딪쳤다. 민재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났다. 교사는 다친 민재의 상처를 치료하고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지도하였다. 민재의 상처를 보고 놀랄 부모를 생각하여 전화 상담을 하였다.

교사의
태도와
상호작용

답변 예시

“민재의 무릎을 보셨나요? 속상하셨지요? 담임인 제가 봐도 속상한데 어머님(아버님)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바깥놀이 시간에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짧은 순간에 이렇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민재가 이야기 하던가요?”

“오늘 바깥놀이에서 공놀이할 때 유아 두 명이 공을 잡으려고 달려오다가 서로 부딪쳤어요. 민재가 넘어져서 무릎에 약을 살짝 발라줬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다쳤습니다. 민재도 공놀이 하다가 모르고 다친 거라며 말하고 함께 공놀이한 친구와 사과했습니다.”





집단상담은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이 그룹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방법이다. 영유아의 행동문제가 유사하거나, 발달정도, 고민이 유사한 부모들을 그룹으로 형성해서 부모들이 자유롭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

집단상담은 부모들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한 성격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자녀양육 방법을 공유할 수도 있다. 때로는 참시 다른 부모의 고민과 양육방법을 관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개인상담보다 편안하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해 영유아의 개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기가 어려우며,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거나 의견을 말해야 한다면, 부모는 집단상담에 대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의견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부모에게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장소와 분위기

집단상담에서도 상담환경은 중요하다. 비밀보장, 어느 정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대면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상담 시간

모임의 시간은 60분에서 120분 정도가 적당하다.

집단 크기

집단의 크기는 보통 7~8명 정도가 적당하다. 집단의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에 모든 집단원이 골고루 참여하기가 불가능하고, 너무 적으면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소극적인 집단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집단 구성

집단상담자들은 집단의 동질성(연령, 관심사나 문제, 주거 지역 등이 유사한 사람들)을 근거로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동질집단에서는 출석률이 좋고, 보다 쉽게 공감 이루어지고 상호간에 즉각적인 지지가 가능하며, 집단 소속감의 발달이 쉽게 이루어진다.

상담자 역할

집단상담에 처음 참여하는 부모들은 상담의 형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서먹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주제가 제시되어도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거북한 침묵이 계속되기도 한다. 교사는 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사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개방하고 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교사의 이야기보다는 부모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도록 돕는다.

상담 과정

- 부모들의 자기소개
- 집단상담의 주제 소개(예: 소극적인 아이 지도, 자녀의 학습 지도, 자녀의 리더십 기르기, 자녀의 생활습관 지도하기 등)
- 부모들의 경험 또는 자녀의 현재 모습 이야기
- 부모들의 어려움 토로
- 서로 격려하며 지도 방안에 대한 조언
- 부모들의 의견에 대한 종합정리

🔍 사례 들여다보기

김교사는 영유아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소심한, 감정표현이 거친, 민감한, 또래관계의 문제를 경험하는 어린이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부모양육 방법을 서로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집단상담을 계획하였다.

예시

① 부모들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상담의 사회를 맡은 김민희교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부모님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진성 부모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② 집단 상담의 주제 소개	“오늘 집단상담의 주제는 자녀의 ‘리더십 지원하기’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다른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상담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③ 부모들의 경험 또는 자녀의 현재 모습 이야기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리더십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부모님들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④ 부모들의 어려움 토로	“자녀의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보셨나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박은지 부모님의 의견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있는 부모님 계신가요?” “부모님은 어려웠을 때 어떤 어린이였는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⑤ 서로 격려하며 지도 방안에 대한 조언	“장현정 부모님께서 많이 실망하셨네요. 혹시 자녀 양육의 경험을 토대로 박은지 부모님께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⑥ 부모들의 의견에 대한 종합정리	“오늘 자녀의 리더십에 대한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았을 때 유아가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것이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안해주신 대로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냈을 때 격려해주는 가운데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들의 자신감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과 놀이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상담도 문자 또는 메일, 키즈노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대면상담보다 관계형성에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고도 상담관계가 쉽게 맺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표정이나 모습과 같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문자로 표현된 내용에 더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게 된다.

장점

- 온라인 상담은 교사가 글을 보고 부모가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한다. 또한 글로 부모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고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라인 상담에서는 문자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상담에서처럼 많은 내용을 주고받기 어렵다. 또한 말로 할 경우에는 생각할 여유가 많지 않지만 키보드 자판을 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교사는 그 시간 동안 상담전략을 구상하거나 잠시 메모를 하거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대면상담보다 유리하다.
- 대면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하고 때로는 먼 거리를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상담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상담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늦은 저녁시간에도 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개인생활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본자세

-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온라인 상담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상담 자료와 답변 자료는 반드시 공신력을 지켜야 한다.
- 교사의 상담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미 문서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